

먼저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되라.

We must be our own before we can be another's.

(Ralph Waldo Emerson)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전에 자신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

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소위 가족관계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학교, 조직 등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장되어 가면서 자신만의 색과 소리, 그리고 자신만의 느낌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고, 자신만의 느낌을 소유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전해오는 느낌을 바라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속으로 저에게 말하겠죠? 너는 어떤데? 저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를 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야 하나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었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고, 권력을 잡고자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신을 찾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를 위한 사람이 먼저라고….

지금 몇몇 유명 인사들이 언론을 통하여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과 소리, 느낌에 충실한 수신(修身)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구설에 오르고 있을까요?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된다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부모를 위한 것도, 배우자를 위한 것도, 자식을 위한 것도, 직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은 오직 자신을 위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